

기술분석보고서 산업재

한국정밀기계 (101680)

- ▶ 요약
- ▶ 기업현황
- ▶ 시장동향
- ▶ 기술분석
- ▶ 재무분석
-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서울평가정보(주) 작성자 박진희 책임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449-145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밀기계(101680)

고정밀 대형 부품가공 수요에 대응하며, 해외시장 확대와 사후관리 역량 강화 중

기업정보(2026.06.16 기준)

대표자	하종식
설립일자	1998년 4월 21일
상장일자	2009년 5월 19일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주요제품	대형공작기계(더블 칼럼 머시닝센터, CNC 선반) 등

시세정보(2026.06.16 기준)

현재가(원)	2,19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184
발행주식수	8,404,000주
52주 최고가(원)	4,300
52주 최저가(원)	1,912
외국인지분율	1.72%
주요주주	하종식 외 4인, 한국주강(주), 한국제강(주) 등

■ 대형 CNC 공작기계 전문성과 수주형 제조 역량 기반 해외 고객 다변화 추진 중

한국정밀기계(이하, 동사)는 대형 CNC 공작기계를 중심으로 금속절삭가공기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기계 제품 판매가 핵심 매출원이고 A/S 및 기타 서비스 매출을 통해 고객 관계와 후속 수주 기반을 보완하고 있다. 고객별 사양에 따라 개발·설계·생산·납품이 이루어지는 수주형 사업모델을 보유하고 있어 매출과 가동률은 납품 일정, 검수, 수주잔고에 따라 변동성이 나타난다. 대형·특수 공작기계 개발 역량과 사후관리 대응력이 주요 경쟁력이나, 대형 장비 수주 확대, 해외 고객 다변화, 안정적 납품 관리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 전방 투자 사이클과 핵심부품 조달 리스크에 민감한 시장

대형 CNC 공작기계 시장은 고중량·고강도 소재를 정밀하게 가공해야 하므로 장비 강성, 장거리 이송 정밀도, 열변위 제어, 진동 억제, 고토크 스피들, 다축 복합가공 역량이 핵심 경쟁요소로 작용한다. 수요는 전방 제조업의 설비투자, 노후 장비 교체, 수입 장비 대체, 생산성 개선 투자에서 발생하며, 후방에서는 컨트롤러, 서보모터, 볼스크류, 베어링 등 핵심부품 조달 안정성이 중요하다. CNC 공작기계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성장 전망이 유지되나, 경기, 통상환경, 환율, 프로젝트 투자 지연에 따른 변동성이 크다.

■ 해외·에너지 분야 수요 확대와 A/S 안정화 추진 중

동사는 대형 CNC 공작기계 중심의 사업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S 및 기타 부문의 중요성 확대, 해외 고객 다변화, 에너지·발전설비·산업용 베어링 등 대형 부품가공 수요처와의 연결성이 확인되었다. 신규 공급계약은 대형 장비 수주 경쟁력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이나, 동사의 향후 전망은 특정 계약뿐 아니라 대형 장비 수주 지속성, 수주잔고의 원활한 매출 전환, 납품·검수 관리, 해외시장 대응력, 핵심부품 조달 안정화, A/S 기반 반복 매출 확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별도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3	437.3	3.4	-70.2	-16.0	-77.9	-17.8	-17.4	-8.6	117.0	-927	4,844	N/A	0.5
2024	637.0	45.7	20.7	3.3	15.0	2.4	3.7	1.9	73.6	179	4,970	16.6	0.6
2025	305.7	-52.0	-75.3	-24.6	-80.9	-26.5	-21.4	-11.3	109.1	-962	4,043	N/A	0.6

기업경쟁력

대형·특수 목적 CNC 공작기계 전문 제조 역량	• 발전설비, 조선, 증장비, 플랜트 등 대형 부품가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대형·특수 목적 CNC 공작기계 설계·제작 역량 보유
고객 맞춤형 프로젝트 수행 역량	• 고객별 가공 대상과 요구 사양에 맞춰 장비를 설계·제작하고 납품·검수·사후관리까지 수행하는 수주형 프로젝트 대응 역량 확보
사후관리 기반의 고객 유지 역량	• 기존 납품 장비를 기반으로 A/S, 부품 교체,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며 고객 관계 유지와 후속 수주 가능성 증가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고강성·고정밀 대형 장비 설계기술	• 대형 공작물 가공에는 장비 구조의 강성, 장거리 축 이송 정밀도, 열변위 제어, 진동 억제 기술이 중요하고, 더블컬럼 머시닝센터, 플로어타입 보링·밀링머신, 대형 수평보링기 등 대형 구조물 및 중량물 가공 장비에 적용
고토크 절삭 및 대형 회전체 가공기술	• 고중량 금속 소재와 대형 회전체를 안정적으로 가공하기 위해 고토크 스피들, 정밀 선삭, 중절삭 대응 기술이 요구되고, CNC 수직선반, CNC 수평선반, 크랭크샤프트 가공기, Turning Machine, VTL Machines 등 대형 회전체 및 산업용 부품 가공 장비에 활용
다축·복합가공 및 특수 목적 장비 개발기술	• 단일 기능 장비보다 복수 공정을 통합하고 고객 공정에 맞춘 특수 목적 장비를 구현하는 기술로, 5축 복합가공기, 기어가공기, 전용기, 난삭재 및 복합소재 가공장비 등에 적용

시장경쟁력

대형 CNC 공작기계 시장 내 차별화된 포지션	• 범용 공작기계보다 진입장벽이 높은 대형·특수 목적 CNC 공작기계 시장에 집중해 차별화된 시장 지위 확보
에너지·조선·증장비 등 대형 부품가공 수요와의 높은 연계성	• 동사의 제품은 발전설비, 조선, 증장비, 플랜트, 에너지 인프라 등 대형 부품가공 수요처와 직접 연결
해외시장 확대 가능성	• 해외 공급 경험과 최근 공급계약을 바탕으로 베트남, 인도 등 신흥 제조국의 대형 CNC 공작기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확보

VRIO 분석 (VRIO Analysis)

VRIO(브리오) 분석이란 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원과 활용 능력을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 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는 도구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특수 목적 CNC 공작기계 설계·제작 역량은 발전설비, 조선, 증장비, 플랜트, 에너지 등 고정밀 대형 부품가공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 사업적 가치가 높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CNC 공작기계는 고강성 구조 설계, 장거리 이송 정밀도, 고토크 절삭, 고객 맞춤형 제작 경험이 요구되어 범용 공작기계 업체가 쉽게 확보하기 어려운 희소성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적된 대형 장비 개발 실적, 납품 경험, 검수 대응, 사후관리 노하우가 기반으로 단기간 모방은 어렵지만 일부 핵심부품 외부 의존도는 기술 차별성의 제한 요인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CNC 공작기계 중심 제품 포트폴리오, 수주형 프로젝트 수행 체계, A/S 대응 역량, 해외 공급 경험 등 보유 역량을 사업화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갖추고 있다.

I. 기업 현황

대형 CNC 공작기계 전문성과 수주형 제조 역량 기반 해외 고객 다변화 추진 중

동사는 대형 CNC 공작기계를 중심으로 금속절삭가공기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기계 제품 판매가 핵심 매출원이고 A/S 및 기타 서비스 매출을 통해 고객 관계와 후속 수주 기반을 보완하고 있다. 고객별 사양에 따라 개발·설계·생산·납품이 이루어지는 수주형 사업모델을 보유하고 있어 매출과 가동률은 납품 일정, 검수, 수주잔고에 따라 변동성이 나타난다. 대형·특수 공작기계 개발 역량과 사후관리 대응력이 주요 경쟁력이나, 핵심부품 일부의 해외 의존으로 환율·공급망 리스크가 존재하며, 경쟁력은 대형 장비 수주 확대, 해외 고객 다변화, 안정적 납품 관리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 기업 개요

동사는 1998년 4월 설립되어 2009년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고, 공작기계 및 산업기계의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핵심 사업모델은 대형 공작기계의 개발, 설계, 생산, 판매 및 판매 이후 A/S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공작기계 제품 판매가 매출의 중심이며, 기타 매출은 A/S 등 사후관리 성격의 서비스 매출로 구성된다. 생산은 경남 함안 본사 공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동사 제품은 양산형 제품보다 고객 주문에 따라 사양이 결정되는 수주생산 방식에 가깝다. 주문되는 기계의 크기와 사양에 따라 가공방법, 조립방법, 소요시간이 다르고, 연도별 가동률에 편차가 있어 수주 잔고와 납품 일정에 따라 생산가동률이 변동되는 수주산업의 특성을 반영한다.

주요 제품은 금속절삭 공작기계로, 목적물 가공에 사용되는 대형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컴퓨터 수치제어) 공작기계가 중심이다. 공작기계는 기계를 만드는 기계로, 자동차, 조선, 발전설비, 중장비, 플랜트, 항공, 정밀기계 등 전방 제조업의 부품가공 수요와 직접 연결된다. 동사는 특히 대형공작기계 분야에 집중하고 있어 일반 범용 공작기계보다 고객별 사양 대응, 대형 구조물 가공, 복합 공정 처리 역량이 중요한 사업 특성을 가진다. 주요 고객군은 대형 부품가공 장비를 필요로 하는 제조업체로, 발전설비, 중장비, 조선, 플랜트, 항공기, 대체에너지 등 대형 구조물 및 고정밀 부품을 가공하는 산업이 주요 전방 수요처로 판단된다. 동사는 선진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던 고가의 대형공작기계 상당 부분을 자체 개발해 수입대체 효과를 확보해 왔으며, 기존 장비 성능개선과 고성능·고정밀 장비 개발을 통해 대형공작기계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핵심 경쟁력은 대형공작기계 분야의 독자 설계능력, 고객 맞춤형 제작 역량, 대형 장비 라인업, 사후관리 역량으로 요약된다. 다만

NC(Numerical Control) Controller, Ball Screw, Servo Motor, Scale, Bearing 등 주요 핵심 부품 일부는 외국 제품에 의존하고 있어 환율, 공급망, 부품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향후 동사는 대형공작기계 기술 기반을 유지하면서 해외 매출처 다변화, 서비스 역량 강화, 핵심부품 조달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성장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표 1] 동사의 주요 연혁

연월	내용
1998.04	법인 설립
1999.04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08	CNC CRANKSHAFT ROUGH MILLING MACHINE 개발
2009.05	코스닥 시장 상장
2010	CNC GEAR HOBBING MACHINE 개발
2013.10	대형 CNC기어연삭기 개발
2020.12	극저온 중절삭 가공기(HTC-800MT) 개발 탄소섬유복합재(HDW 5X3) 가공시스템 개발

자료: 동사 홈페이지,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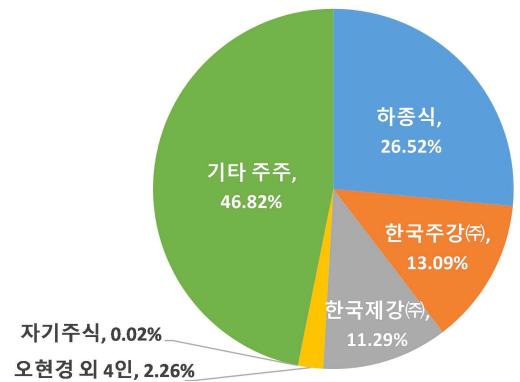
■ 주주 현황

2026년 6월 기준 최대주주는 하종식으로, 전체 발행주식(8,404,000주) 중 2,229,15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지분의 26.52%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특수관계법인인 한국주강과 한국제강이 1,100,000주(13.09%)와 948,930주(11.29%)의 주식을, 오현경 외 3인의 특수관계자가 189,687주(2.26%)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을 합계는 53.16%이다. 한편, 동사는 자기주식 1,231주(0.02%)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3,935,002주(46.82%)는 소액주주 등 일반 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와 관계사 지분이 과반 이상의 지분 영향력을 확보하여 경영권 안정성이 높은 구조로 판단된다. 이는 장기적인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운영, 해외시장 개척 등 중장기 의사결정의 연속성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 관점에서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감사 기능, 특수관계자 거래 관리, 주요 의사결정의 공시 충실성이 중요하고, 일반주주 권익 및 경영 투명성 관리 요구를 동반한다는 점이 주요 시사점이다.

[표 2] 동사의 주요 주주 현황(보통주 기준)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관계
하종식	2,229,150	26.52%	최대주주
한국주강(주)	1,100,000	13.09%	특수관계법인
한국제강(주)	948,930	11.29%	특수관계법인
오현경 외 3인	189,687	2.26%	특수관계인
자기주식	1,231	0.02%	
기타 주주	3,935,002	46.82%	
합계	8,404,000	100.00%	



자료: 동사 분기보고서(2026.05),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2026.06),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사업 영역

동사의 사업 영역은 금속절삭가공기계 제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출유형은 공작기계 제품 판매와 기타 A/S 등으로 구분되며, 공작기계 제품 판매가 핵심 사업, A/S 및 기타 서비스가 보조 사업에 해당한다.

핵심 사업인 공작기계 부문은 대형 CNC 금속절삭 공작기계를 중심으로 한다. 공작기계는 금속 공작물을 절삭, 연삭, 천공, 보링, 밀링 등의 방식으로 가공하는 장비이며, CNC 공작기계는 수치제어 장치를 통해 자동화와 고정밀 가공을 구현한다. 동사의 제품은 CNC 선반, 대형 가공기, 복합가공기, 보링·밀링 장비 등 대형 부품가공에 필요한 장비군으로 해석된다.

보조 사업인 A/S 및 기타 매출은 장비 판매 이후의 유지보수, 부품 교체, 기술지원, 고객 대응을 통해 발생하고, 제품 판매가 증가하면 일정 시차를 두고 A/S 매출 확대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작기계는 고가이고 장기간 사용되는 자본재이므로 납품 이후 사후관리 품질이 고객 재구매와 후속 수주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동사의 A/S 사업은 고객 기반 유지와 해외 영업 확대를 뒷받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업부문 간 관계는 제품 판매와 서비스의 순환 구조로 설명된다. 고객별 사양을 반영해 장비를 개발·설계·생산하고, 납품 이후에는 사후관리를 통해 장비 운용 안정성과 고객 만족도를 확보한다. 이러한 구조는 가격 경쟁보다 기술 대응력, 납기 준수, 품질 신뢰, 사후지원 역량이 중요한 대형공작기계 시장에 적합하다.

한국정밀기계(101680)

사업 포트폴리오는 대형공작기계 제조 역량을 중심축으로 하되, 제품군 확장과 해외 수요처 확대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동사는 대형 장비의 개발·설계·생산 경험을 기반으로 발전설비, 중장비 등 대형 부품가공 수요에 대응하고, 장비 판매 이후 A/S와 기술지원을 통해 고객 관계를 유지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향후 포트폴리오 경쟁력은 장비 수주 확보, 납품 이후 사후관리 매출의 안정화, 해외시장 내 고객 기반 확대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주형 장비사업 특성상 단기 매출 변동성이 불가피하므로, 대형공작기계 중심의 기술 기반을 유지하며 수출 지역과 고객군을 다변화해 매출 편중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표 3] 동사의 매출 실적

(단위 : 억 원, %)

구분	2023년	비중	2024년	비중	2025년	비중
공작기계 판매	416.5	95.2%	581.3	91.3%	233.0	76.2%
A/S 및 기타	20.8	4.8%	55.7	8.7%	72.7	23.8%
매출 합계	437.3	100.0%	637.0	100.0%	305.7	100.0%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판매조직 및 판매전략

동사의 판매 방식은 일반 제품 유통형 영업이 아니라 기술 기반의 프로젝트형 영업에 가깝다. 대형공작기계는 고객의 가공 대상, 공장 레이아웃, 생산 공정, 지정 부품, 정밀도 요구 수준에 따라 설계와 가격이 달라지므로 입찰, 계약, 개발, 설계, 생산, 납품, 검수의 절차가 중요하다.

판매경로는 국내와 수출로 구분된다. 국내 판매는 입찰 및 계약 이후 동사가 개발·설계·생산해 국내 소비자에게 납품하는 구조이며, 수출은 입찰 및 계약 이후 미국 등 해외시장으로 직접 또는 간접 수출하는 방식이다. 매출 구조상 수출 비중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24년 매출 637억 원 중 수출은 551억 원, 내수는 86억 원으로 수출 중심 구조가 뚜렷했다. 2025년에는 전체 매출 306억 원 중 수출이 215억 원, 내수가 90억 원으로 감소했으나 수출 의존도는 여전히 높았다.

판매전략은 대형공작기계 전문 생산기업으로서 기술력과 이미지를 부각하고, 제품 개발 단계부터 고객 요구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사전관리(B/S)와 A/S를 통한 사후관리, 영업망 재정비, 영업인력의 실무능력 향상, 교육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해 고객 중심营业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딜러망 확충과 Product Support 조직 강화를 통해 현지 시장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수주잔고는 향후 매출 전환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2026년 1분기 기준 공작기계 수주총액은 897억 원, 기납품액은 44억 원, 수주잔고는 853억 원이다. 이는 단기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향후 납품 일정에 따른 매출 인식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다만 수주잔고는 고객 검수, 납기, 원자재 조달, 환율, 프로젝트 지연 등에 따라 매출 전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매전략의 핵심은 신규 수주 확보뿐 아니라 수주잔고의 안정적 생산·납품 관리에 있다.

II. 시장 동향

전방 투자 사이클과 핵심부품 조달 리스크에 민감한 대형 CNC 공작기계 시장

목표시장은 발전설비, 조선, 중장비, 플랜트, 에너지, 항공 등 대형 부품가공 수요와 직접 연결되는 대형 CNC 공작기계 시장으로, 고중량·고강도 소재를 정밀하게 가공해야 하므로 장비 강성, 장거리 이송 정밀도, 열변위 제어, 진동 억제, 고토크 스피들, 다축 복합가공 역량이 핵심 경쟁요소로 작용한다. 수요는 전방 제조업의 설비투자, 노후 장비 교체, 수입 장비 대체, 생산성 개선 투자에서 발생하며, 후방에서는 컨트롤러, 서보모터, 볼스크류, 베어링 등 핵심부품 조달 안정성이 중요하다. CNC 공작기계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성장 전망이 유지되나, 최근 국내 공작기계 수주·생산·출하 둔화와 수출 감소에서 보듯 경기, 통상환경, 환율, 프로젝트 투자 지연에 따른 변동성이 크다.

■ 대형 CNC 공작기계 시장의 특성

동사의 목표시장은 제품군과 매출 구조에 직접 연결되는 대형 CNC 공작기계 시장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형 CNC 공작기계는 CNC를 기반으로 대형 금속 소재를 자동 제어 방식으로 정밀하게 절삭·가공하는 장비다. 일반 CNC 선반이나 머시닝센터가 자동차, 전자, 금형 등 범용 부품가공에 폭넓게 사용된다면, 대형 CNC 공작기계는 크랭크샤프트, 선박엔진 부품, 대형 회전체, 발전설비 부품, 플랜트 구조물 등 중량물·대형물·고강도 소재 가공에 특화된다.

수요 전방산업의 설비투자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제조업에서는 공작기계를 통해 부품을 생산하므로 자동차, 반도체, 항공기, 선박, 일반기계, 발전설비 등 주요 제조업의 투자 사이클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동사가 주력하는 대형 CNC 공작기계는 일반 제조업 경기뿐 아니라 조선, 발전, 중장비, 플랜트 등 대형 설비 산업의 프로젝트 발주와 직접 연동된다. 실제 수요는 신규 설비투자, 노후 장비 교체, 고정밀 부품 수요 확대, 수입 장비 대체, 생산성 개선 투자에서 발생한다.

후방산업은 구조물, 제관품, 대형 구조부품, 컨트롤러, 서보모터, 볼스크류, 베어링, 스케일, 스피들, 정밀가공 공구, 제어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된다. 대형 CNC 공작기계는 장비 크기와 가공 하중이 크기 때문에 기계 구조물의 품질과 정밀 조립 역량이 중요하며, 동시에 제어장치와 구동계 부품의 성능이 가공 품질과 장비 신뢰성을 결정한다. 국내 공작기계 산업은 상당 부분 완제품 제조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나, 수치제어장치, 서보모터, 볼스크류, 베어링 등 일부 핵심부품은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존재한다. 이는 환율, 납기, 공급망 불안정, 부품가격 변동이 원가와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장 구조는 다품종 소량생산과 프로젝트형 수주가 결합된 형태다. 범용 공작기계 시장은 비교적 많은 업체가 참여하는 반면, 대형 CNC 공작기계 시장은 설계 경험, 대형 구조물 가공기술, 정밀 조립 역량, 납품 이력, 사후관리 체계가 요구되어 진입장벽이 높다. 고객사는 고가 장비를 장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단순 가격보다 가공 정밀도, 장비 안정성, 납기 준수, A/S 품질, 총소유비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목표시장은 기술력과 고객 신뢰 기반의 제한적 경쟁 구조를 형성한다. 한편, 대형 CNC 공작기계는 동일한 장비군이라도 고객이 요구하는 가공 대상, 장비 크기, 자동화 수준, 지정 부품, 정밀도 조건, 검수 기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므로 표준 제품을 대량 판매하는 경우보다 고객별 사양 대응과 프로젝트 관리 역량이 중요하다.

■ 핵심 트렌드 및 시사점

목표시장의 핵심 트렌드는 고속화, 복합화, 정밀화, 자동화로 요약된다. 최근 제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 변종

변량생산, 짧은 납기, 원가절감, 경량화 소재 적용 확대라는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한 대의 장비로 선삭, 밀링, 보링, 드릴링 등 복수 공정을 처리하거나, 공정 셋업 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는 장비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대형 CNC 공작기계에서도 단순한 대형화보다 복합가공, 공정 단축, 자동화 대응, 장시간 가공 안정성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기술은 제어 시스템과 기계 구조기술의 동시 고도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CNC 장비는 제어 시스템, 기계 구조·구동 기술, 절삭 공구 및 툴링, 센서 및 피드백, CAD/CAM(Computer-Aided Design/Computer-Aided Manufacturing), 자동화·로봇 연계, 스마트·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복합 장비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대형 장비는 열변위와 진동, 축 이송 오차가 가공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센서 기반 상태 모니터링, 실시간 보정, 예지정비, 가공 데이터 활용 능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시장 전망은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성장 기조로 예상되나, 단기적으로 경기와 통상환경에 따른 변동성이 존재한다. 국내 CNC 공작기계 시장은 2024년 3조 5,804억 원에서 연평균 5.6% 성장해 2029년 4조 7,0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CNC 공작기계 시장은 2024년 664억 달러에서 연평균 3.7% 성장해 2029년 79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공작기계 업황은 회복과 둔화 요인이 혼재되어 있다.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에 따르면 2025년 공작기계 수주는 2조 9,6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고, 내수 수주는 9,541억 원으로 13.4% 감소한 반면 수출 수주는 2조 135억 원으로 6.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작기계 생산은 2조 2,702억 원으로 9.4% 감소했고, 출하는 2조 9,305억 원으로 4.2% 감소했다. 이는 국내 공작기계 시장이 제조업 고도화 수요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단기적으로는 내수 투자 위축, 통상환경 변화, 글로벌 수요 둔화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출 환경도 주요 변수다. 2025년 공작기계 수출은 22억 1,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8% 감소했으며, 아시아, 유럽, 북미 등 주요 권역에서 모두 감소세가 나타났다. 대형 CNC 공작기계는 단가가 높고 프로젝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해외 고객사의 설비투자 지연, 관세정책, 환율, 지정학적 리스크가 수주와 매출 인식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선진국의 리쇼어링, 방위산업 및 에너지 인프라 투자, 조선·플랜트 투자 회복이 나타날 경우 대형 장비 수요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대형 공작기계에 특화된 제품 개발 경험과 수입대체형 장비의 개발 이력을 보유한 점은 동사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A/S 역량과 고객 맞춤형 설계·제작 역량도 수주 경쟁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다만 전방산업의 설비투자 사이클에 민감하고, 납품·검수 기간이 길어 매출 변동성이 발생하기 쉬우며, 핵심부품 일부의 해외 의존도는 환율과 공급망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글로벌 CNC 공작기계 시장 (단위 : 억 달러)



[그림 2] 국내 CNC 공작기계 시장 (단위 : 억 원)



자료: Markets and Markets, Grand View Research,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III. 기술분석

대형·특수 목적 CNC 공작기계 설계·제작 역량으로 고정밀 대형 부품가공 수요에 대응

동사는 대형 CNC 공작기계 설계·제작 역량을 핵심 기술 기반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고강성 장비 구조, 장거리 축 이송 정밀도, 고토크 절삭 대응, 다축·복합가공, 고객 맞춤형 엔지니어링 역량을 바탕으로 발전설비, 조선, 중장비, 플랜트, 항공 등 대형 부품가공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동사의 연구개발은 수입대체형 대형 장비, 5축 복합가공기, 초대형 보링·밀링 장비, 크랭크샤프트 가공기, 난삭재 및 복합소재 가공장비 등 고부가가치 장비 개발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범용 공작기계보다 대형·특수 목적 장비에 특화된 기술 축적을 보여준다.

■ 핵심 보유기술 및 특장점

동사는 대형 CNC 공작기계 설계·제작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기술 경쟁력은 범용 공작기계보다 대형·중량물·고정밀 부품가공에 적합한 장비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주요 제품군은 대형 선반, 보링·밀링 장비, 더블컬럼 머시닝센터, 갠트리형 가공기, 기어가공기, 전용기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발전설비, 조선, 중장비, 플랜트, 항공 및 정밀기계 산업의 대형 부품가공 수요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동사의 핵심 보유기술은 대형 구조물 가공을 위한 고강성 장비 설계, 장거리 축 이송 정밀도 확보, 고토크 절삭 대응, 다축·복합가공 구현, 고객별 사양 대응형 엔지니어링 기술로 정리된다. 대형 CNC 공작기계는 장비 규모가 커질수록 열변위, 진동, 구조 강성, 조립 정밀도 관리가 가공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 부품 조립보다 장비 전체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설계·제작하는 역량이 중요하다. 동사는 이러한 대형 장비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고중량·대형 부품의 절삭·보링·밀링·선삭·기어가공 등 복합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대형공작기계 영역에서 자체 개발 및 제작 경험을 축적한 점이 특징적이다. 대형 선박 엔진용 크랭크샤프트 가공기, 초대형 플로어타입 보링·밀링머신, 5축 복합가공기 등 대형·특수 장비 개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장비는 수입대체와 해외 공급 사례로 연결된 바 있다. 이는 동사가 대형 장비의 설계, 구조 안정성, 가공 정밀도,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핵심부품 내재화 측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CNC Controller, Ball Screw, Servo Motor, Scale, Bearing 등 일부 핵심부품은 외부 또는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는 구조가 확인된다. 따라서 동사의 기술 경쟁력은 핵심부품 자체 제조보다 대형 장비 설계·제작·통합·응용 기술에 강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향후 경쟁력은 대형 장비 제작 경험을 기반으로 제어·소프트웨어·센서·자동화 기능을 얼마나 통합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동사의 CNC 수평보링기, CNC 수평선반, CNC 기어 연마기 설치사례



자료: 동사 홈페이지, 서울평가정보(주)

■ 연구개발 역량

연구개발활동은 대형공작기계의 고정밀화, 복합가공화, 특수소재 가공 대응, 수입대체형 장비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동사의 연구개발은 단순 제품 개량보다 전방산업에서 요구하는 대형 부품가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비 개발 성격이 강하다. 연구개발 과제는 선박, 발전설비, 항공, 복합소재, 중장비 등 대형·고부가가치 제조업의 가공 수요와 연계되어 있다.

주요 연구개발 실적은 대형·복합·특수 가공장비 중심으로 구성된다. 다기능 5축 복합가공기 개발을 통해 경량화 고강성 구조, 고속이송, 복합가공, 다축 제어 및 시스템 통합 기술을 확보했으며, CNC Gantry Planomiller는 선박엔진 부품과 같은 대형 공작물의 밀링·보링·드릴링·탭 가공을 단일 세팅으로 수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CNC Gear Hobbing Machine과 Gear Grinding Machine은 기어 가공 및 정밀 마무리 공정에 대응하는 장비로, 대형 기계부품의 품질 안정성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기술축으로 볼 수 있다.

특수 가공 분야에서는 극저온 가공, 탄소섬유복합재 가공, 자동섬유적층 기술 등 난삭재 및 복합소재 대응 연구가 확인된다. 극저온 중절삭 가공기와 5축 머시닝센터는 고토크·난삭재 가공과 공구비 절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성격을 가지며, Drill & Waterjet Cutting Machine과 Automated Fiber Placement 장비는 항공기 부품, 선박, 자동차 경량 부품 등 복합소재 적용 산업을 겨냥한 장비 개발로 해석된다.

대형 장비 개발 성과 중에서는 대형 선박엔진용 크랭크샤프트 가공기와 초대형 플로어타입 CNC 수평 보링·밀링머신이 주목된다. 크랭크샤프트 가공기는 대형 선박엔진 부품의 편부와 저널부 정삭가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장비로, 수입 장비 대체 효과가 있는 개발 사례다. 초대형 보링·밀링머신은 대형 스핀들 및 고출력 모터를 기반으로 한 초대형 공작기계 제작능력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해외 상품화 모델 공급 경험도 확인된다. 이러한 연구개발 방향은 동사가 범용 CNC 장비보다는 대형·특수 목적 장비의 고부가가치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 품질 및 제품 인증 현황

동사의 인증 기반은 대형 CNC 공작기계 제조기업으로서 요구되는 품질관리 체계, 제품 안전성, 정밀가공 기술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요소로 평가된다. 동사는 대형공작기계의 설계·제작 경험과 제품화 실적을 기술자산으로 축적하고 있으며, 품질 및 제품 관련 다수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동사의 기술 기반이 단순한 내부 노하우에 그치지 않고, 품질·제품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외부 검증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사는 ISO 9001 기반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있다. ISO 9001은 제품의 설계, 생산, 검사, 사후관리 과정에서 품질경영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인증으로, 대형 공작기계와 같이 고객별 사양, 납기, 검수, 장기 운용 안정성이 중요한 산업에서 신뢰 확보의 기반으로 작용한다. 동사는 공작기계 생산 과정에서 성능, 기능, 신뢰성을 중심으로 고객 만족을 확보하는 것을 품질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품질보증시스템의 유지·개선과 품질문제 개선조치를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제품 인증 측면에서는 VTC/NT-CE 및 HB-CE가 확인된다. CE 인증은 유럽 시장에서 제품 안전, 보건, 환경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요구사항 충족을 의미하는 인증으로, 수출형 장비업체에 중요한 시장 접근 요건이다. 대형 CNC 공작기계는 고가 장비이며 작업자의 안전과 설비 안정성이 중요하므로, 제품 안전성 및 규격 대응은 해외 고객 확보와 수출시장 대응력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정밀기술 2등급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 동사가 공작기계 제조에서 요구되는 정밀가공 및 장비 제작 기술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PES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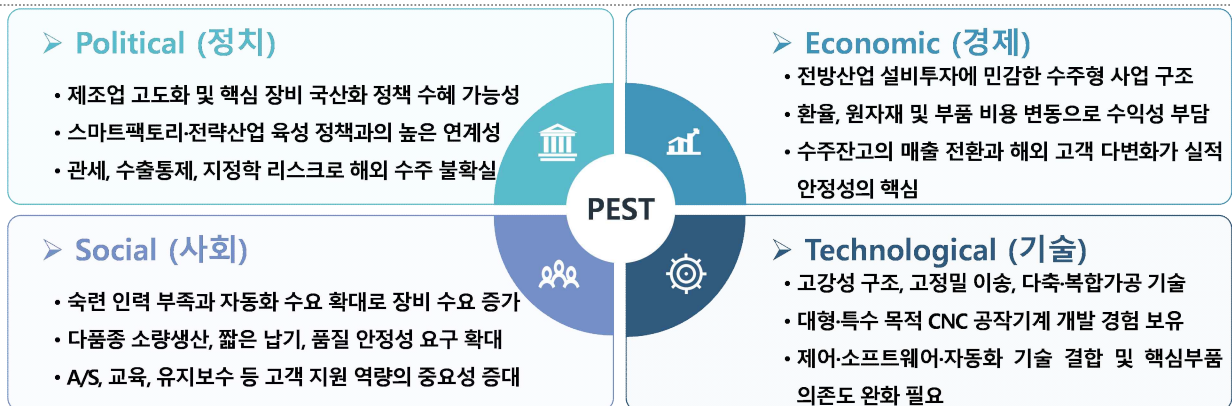
동사가 영위하는 대형 CNC 공작기계 사업은 제조업 기반 강화, 기술 자립, 전략산업 보호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공작기계는 발전설비, 조선, 중장비, 플랜트, 항공 등 국가 기간산업의 생산 기반을 뒷받침하는 자본재로, 정부의 제조업 고도화 정책, 스마트팩토리 확산, 핵심 장비 국산화 지원은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대형 장비 수출 비중이 높은 사업 특성상 관세정책, 수출통제, 지정학적 분쟁, 주요국의 보호무역 강화는 수주와 납품 일정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제조권역의 통상환경 변화와 전략물자 규제는 해외 매출처 확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정책 리스크로 판단된다.

목표시장인 대형 CNC 공작기계 시장은 제조업의 설비투자 사이클에 민감하다. 발전설비, 조선, 중장비, 플랜트 등 대형 부품가공 산업의 투자 확대는 신규 수주와 매출 인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경기 둔화나 프로젝트 지연이 발생할 경우 수주 공백과 가동률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동사는 수출 비중이 높은 편으로 환율, 원자재 가격, 해상운임, 글로벌 금리, 고객사의 투자 여력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일부 핵심부품을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는 구조도 원가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 동사의 실적 안정성은 수주잔고의 매출 전환 속도, 부품 조달 안정성, 해외 고객군 다변화, A/S 등 반복 매출 확대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에서 숙련 인력 부족, 고령화, 짧은 납기 요구, 다품종 소량생산 확대가 진행되고 있고, 대형 CNC 공작기계에 대한 자동화, 복합가공, 공정 단축, 안정적 품질관리 수요를 확대하는 요인이다. 고객사는 장비 가격보다 운용 안정성, 사후관리, 생산성 향상, 작업자 안전성, 유지보수 대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구매 기준을 바꾸고 있다. 동사는 고객별 사양을 반영한 대형 장비 설계·제작 역량과 A/S 대응력을 보유하고 있어 수요 변화에 대응 가능하다. 다만 공작기계 운용에는 전문 인력과 현장 기술 이해가 필요하므로, 교육, 유지보수, 원격지원 등 서비스 역량 강화가 고객 유지와 후속 수주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형 CNC 공작기계 시장은 고강성 장비 구조, 장거리 축 이송 정밀도, 열변위 제어, 진동 억제, 고토크 절삭, 다축·복합가공, CAD/CAM 연계, 센서 기반 피드백, 예지정비 등 복합 기술이 경쟁력을 결정한다. 동사는 대형·특수 목적 CNC 공작기계 설계·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크랭크샤프트 가공기, 초대형 보링·밀링 장비, 5축 복합가공기, 난삭재 및 복합소재 가공장비 등 고부가가치 장비 개발에 집중해 왔다. 이는 대형 부품가공과 주문형 장비에 특화된 기술 축적을 의미하지만, 일부 핵심부품의 외부 의존도는 기술 내재화의 한계로 남아 있다. 향후 동사의 기술 경쟁력은 대형 장비 통합설계 역량을 유지하면서 제어·소프트웨어·자동화·데이터 기반 유지보수 기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결합하느냐에 따라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PEST 분석



자료: 서울평가정보(주)

IV. 재무분석

외형 축소 속 수익성 변동성 확대 및 부채 부담 관리 필요

동사의 3개년 매출액은 2023년 437.3억 원, 2024년 637.0억 원, 2025년 305.7억 원으로 2025년에는 수주 감소로 매출이 둔화되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2025년 원가율이 상승하면서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로 적자전환하였다. 재무구조는 2025년 유동비율이 180.9%로 단기 지급능력을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으나, 부채비율은 109.1%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자기자본비율은 47.8%로 결손금 보전을 통해 자본구조를 재정비하였다.

■ 공작기계 수출 중심 매출 구조

동사의 최근 3개년 매출액은 2023년 437.3억 원, 2024년 637.0억 원, 2025년 305.7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5.7% 증가하며 외형이 확대되었으나, 2025년에는 전년 대비 52.0% 감소하여 수주 기반 약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제품별로는 [공작기계] 매출이 2023년 416.5억 원, 2024년 581.3억 원, 2025년 233.0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핵심을 구성하였다. [기타] 매출은 2023년 20.8억 원, 2024년 55.7억 원, 2025년 72.7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2025년 기준 공작기계 76.2%, 기타 23.8%의 비중을 기록하였다. 수출은 2025년 215.3억 원으로 내수 90.4억 원을 상회하여 수출 중심의 매출 구조가 나타났다.

2026년 1분기 매출액이 44.9억 원으로 전년 동분기 68.9억 원 대비 34.8% 감소하였다. 동사는 2026년 1분기 기준 공작기계 수주잔고 853.0억 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제품 인도 일정에 따라 매출로 전환될 수 있어, 수주잔고의 매출 인식이 본격화될 경우 외형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외형 축소와 함께 원가·고정비 부담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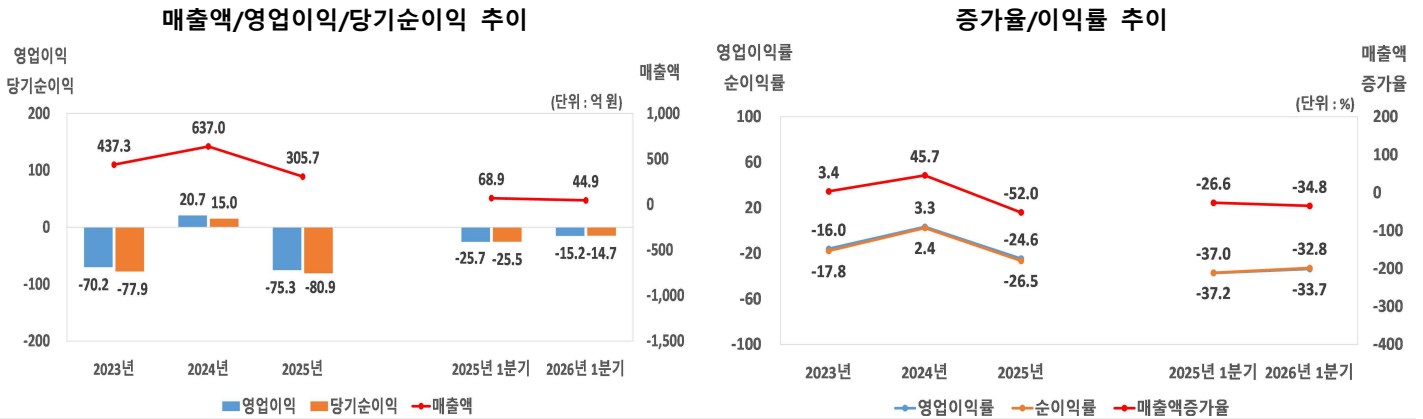
영업이익은 2023년 -70.2억 원, 2024년 20.7억 원, 2025년 -75.3억 원으로 변동성이 컸다. 영업이익률은 2023년 -16.0%, 2024년 3.3%, 2025년 -24.6%로, 2024년 흑자전환 이후 2025년 다시 적자전환하였다. 매출원가율은 2023년 99.4%, 2024년 83.5%, 2025년 100.5%로 2025년에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판관비율도 2024년 13.3%에서 2025년 24.1%로 상승하였다. 외형 축소와 함께 고정비 부담과 원가 부담이 동시에 확대된 결과로 판단된다. 주요 원재료인 NC Controller 가격은 2024년 1대당 0.4억 원에서 2025년 0.5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주조물은 2024년 1톤당 2.1백만 원에서 2025년 2.2백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제조경비에 포함된 경상개발비도 2024년 22.7억 원, 2025년 19.8억 원 수준으로 원가 부담을 높였다.

당기순이익은 2023년 -77.9억 원, 2024년 15.0억 원, 2025년 -80.9억 원이며, 순이익률은 각각 -17.8%, 2.4%, -26.5%로 나타났다. 2025년에는 금융수익 4.4억 원, 금융원가 7.2억 원, 기타손실 4.7억 원 등이 반영되었으나, 최종 손실의 주된 원인은 영업손실 확대에 있으며, 추가적으로 기타비용 중 무형자산손상차손 4.4억 원이 발생하여 순손실 전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1분기에는 영업손실 15.2억 원, 당기순손실은 14.7억 원을 나타냈다.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율 상승과 판관비 부담 확대로 인해 수익성이 약화되었으며, 단기적으로 매출 회복과 비용구조 안정화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수익성 지표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5] 동사 연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별도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단기 유동성 관리 필요, 자본 구조 재정비 진행

동사의 3년간 총자산은 2023년 883.1억 원, 2024년 724.8억 원, 2025년 710.3억 원으로 나타났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23년 17.7억 원, 2024년 72.8억 원, 2025년 19.4억 원으로, 차입금 상환 및 영업현금흐름 감소로 2025년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유동비율은 3년간 167.5%, 213.4%, 180.9%로 일정 부분 유동성을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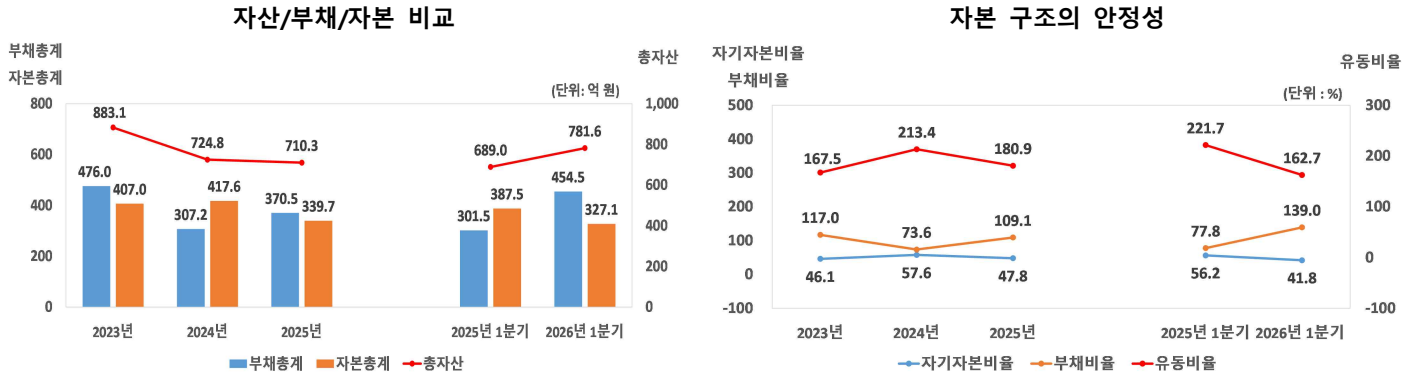
부채총계는 2023년 476.0억 원, 2024년 307.2억 원, 2025년 370.5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023년 117.0%, 2024년 73.6%, 2025년 109.1%로 변화했으며, 단기차입금은 2025년 기준 121.0억 원, 장기차입금은 27.0억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5년 기준 수주 관련 계약부채(선수금) 120.7억 원이 존재하고, 이는 단기 부채 부담 요인이나 향후 매출로 전환될 수 있어 재무안정성을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총계는 2023년 407.0억 원, 2024년 417.6억 원, 2025년 339.7억 원으로 변화하여, 자기자본비율은 2023년 46.1%, 2024년 57.6%, 2025년 47.8%로 나타났다. 다만 결손 상태가 지속되었으나, 2025년에는 자본잉여금 일부(145.1억 원)를 활용한 결손금 보전이 반영되어 자본 구조 재정비가 진행되었다.

2026년 1분기에는 유동비율 162.7%, 부채비율 139.0%, 자기자본비율 41.8%를 기록하였다. 단기차입 부담 확대가 나타나고 있어 유동성 및 차입금 관리가 재무안정성 유지의 핵심 과제로 판단된다. 다만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향후 매출 증대가 이어질 경우 수익성 및 현금흐름 개선과 함께 재무구조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6] 동사 연간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별도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표 4] 동사 연간 요약 재무제표

(단위 : 억 원, % K-IFRS 별도 기준)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1분기	2026년 1분기
매출액	437.3	637.0	305.7	68.9	44.9
매출액증가율(%)	3.4	45.7	-52.0	-26.6	-34.8
영업이익	-70.2	20.7	-75.3	-25.7	-15.2
영업이익률(%)	-16.0	3.3	-24.6	-37.2	-33.7
순이익	-77.9	15.0	-80.9	-25.5	-14.7
순이익률(%)	-17.8	2.4	-26.5	-37.0	-32.8
부채총계	476.0	307.2	370.5	301.5	454.5
자본총계	407.0	417.6	339.7	387.5	327.1
총자산	883.1	724.8	710.3	689.0	781.6
유동비율(%)	167.5	213.4	180.9	221.7	162.7
부채비율(%)	117.0	73.6	109.1	77.8	139.0
자기자본비율(%)	46.1	57.6	47.8	56.2	41.8
영업현금흐름	-89.3	86.6	-91.4	-26.1	15.3
투자현금흐름	14.4	-19.6	7.1	-6.1	-52.4
재무현금흐름	82.0	-12.0	31.0	-20.0	-10.0
기말현금	17.7	72.8	19.4	20.6	24.7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동사 실적 전망

동사는 2026년에 2025년 부진에서 회복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637.0억 원까지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5년에는 공작기계 판매 감소의 영향으로 305.7억 원까지 축소되었다. 2026년 예상 매출은 59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9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5년의 일시적 부진에서 벗어나 매출 규모가 회복되는 국면으로 해석되고, 대형 공작기계 시장의 제한적 경쟁 상황과 최근 고환율 상황으로 수입 대체가 증가할 수 있는 점 고려 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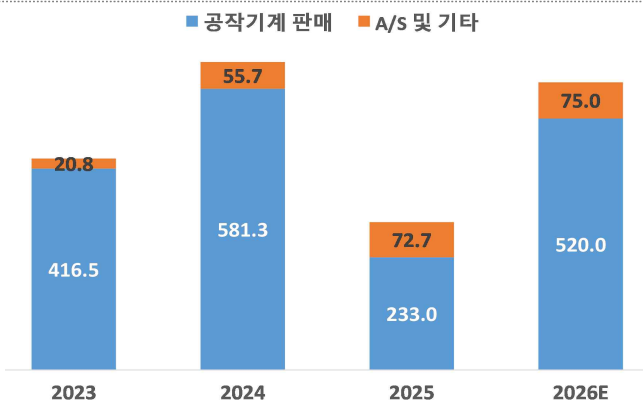
공작기계 판매 부문은 동사 실적 변동의 핵심 요인이다. 공작기계 판매 매출은 2023년 416.5억 원에서 2024년 581.3억 원으로 증가하며 전체 실적 성장을 견인했으나, 2025년에는 233.0억 원으로 급감하면서 총매출 감소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2026년에는 공작기계 판매가 전년 대비 약 123.2% 증가한 520.0억 원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의 사업 특성상 대형 CNC 공작기계는 수주, 설계, 제작, 납품, 검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형 매출 구조를 가지므로, 2026년 실적 개선은 수주잔고의 납품 전환과 신규 장비 매출 인식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A/S 및 기타 부문은 공작기계 판매 부문의 변동성을 일부 완화하는 보완적 매출원으로 평가된다. 해당 매출은 2023년 20.8억 원에서 2024년 55.7억 원, 2025년 72.7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6년에는 75.0억 원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2025년에는 공작기계 판매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A/S 및 기타 매출이 확대되면서 전체 매출 하락을 일부 방어하였다. 대형 CNC 공작기계는 고가 장비로 장기간 운용되며, 설치 이후에도 정비, 부품 교체, 기술지원, 고객 대응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A/S 및 기타 부문은 누적 납품 장비 기반을 활용한 안정적 매출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향후 실적은 공작기계 판매 회복을 중심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2026년 예상 매출 구조를 보면 공작기계 판매가 총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신규 장비 수주와 납품 전환이 외형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동시에 A/S 및 기타 매출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며 실적 하방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형 CNC 공작기계 시장은 전방산업의 설비투자 사이클, 납품·검수 지연, 환율 및 핵심부품 조달 리스크에 민감하므로, 중장기 실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형 장비 수주 지속성, 수주잔고의 원활한 매출 전환, 해외 고객 다변화, A/S 기반 반복 매출 확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 동사 연간 실적 전망

(단위 : 억 원, % K-IFRS 별도 기준)



구분	2023	2024	2025	2026E
공작기계 판매	416.5	581.3	233.0	520.0
A/S 및 기타	20.8	55.7	72.7	75.0
합계	437.3	637.0	305.7	595.0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해외 수요 확대 추진 중, 전방 투자 사이클과 프로젝트 이행 리스크 관리가 핵심

동사는 대형 CNC 공작기계 중심의 사업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S 및 기타 부문의 중요성 확대, 해외 고객 다변화, 에너지·발전설비·산업용 베어링 등 대형 부품가공 수요처와의 연결성이 확인되었다. 신규 공급계약은 대형 장비 수주 경쟁력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이나, 동사의 향후 전망은 특정 계약뿐 아니라 대형 장비 수주 지속성, 수주잔고의 원활한 매출 전환, 납품·검수 관리, 해외시장 대응력, 핵심부품 조달 안정화, A/S 기반 반복 매출 확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제조업 고도화, 스마트팩토리 확산, 고정밀·복합가공 수요 증가가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프로젝트형 사업 특성에 따른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 최근 변동사항

제품 및 기술 측면에서 대형·특수 목적 CNC 공작기계 중심의 정체성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동사의 제품군은 CNC 수직선반, 수평보링기, 플로어타입 보링기, 더블컬럼 머시닝센터, 기어가공기, 전용기 등 대형 부품가공 장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고중량 금속 부품의 고정밀 절삭과 복합가공 수요에 대응하는 구조다. 최근 공시된 Turning Machine 및 VTL Machines 공급계약도 이러한 제품 방향성과 부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은 최근 변화 중 하나일 뿐이며, 보다 본질적으로는 대형 CNC 공작기계 시장 내에서 에너지, 발전설비, 산업용 베어링, 중량물 가공 등 전방 수요처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해외시장 측면에서도 변화가 확인된다. 동사는 기존에도 수출 중심의 판매전략과 해외 딜러망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최근 공급계약에서도 베트남과 인도 등 신흥 제조국 및 에너지 관련 수요처가 확인된다. 이는 동사의 대형 CNC 공작기계가 국내 수요에만 의존하지 않고, 해외 제조업 투자와 인프라 확충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해외 공급계약은 외화 결제, 장거리 운송, 현지 설치·검수, 고객사 승인 절차와 연계되므로 납기 관리와 현지 대응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향후 전망

동사는 앞으로 대형 CNC 공작기계 시장의 구조적 수요와 전방 산업의 설비투자 회복 여부에 따라 성과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고도화, 스마트팩토리 확산, 고정밀 부품가공 수요 증가, 자동화 및 복합가공 요구 확대는 동사에 중장기적인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발전설비, 조선, 중장비, 플랜트, 에너지, 항공 등 대형 부품가공 산업에서는 고강성 장비 구조, 고토크 절삭, 장시간 운전 안정성, 다축·복합가공 능력을 갖춘 대형 CNC 공작기계 수요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체결된 공급계약은 동사의 대형 장비 수주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 Turning Machine과 VTL Machines는 대형 회전체 및 중량물 가공에 활용되는 장비군으로, 풍력·산업용 베어링, 증기터빈 등 에너지 및 산업 인프라 관련 수요와 연결된다. 이는 동사가 기존 조선·중장비 중심 수요뿐 아니라 발전설비, 풍력, 터빈, 산업용 베어링 등 고부가 대형 부품가공 시장으로 고객 기반을 넓힐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신규 계약 자체만으로 중장기 성장을 단정하기보다는, 해당 계약의 제작·납품·검수 완료와 후속 수주 연결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A/S 및 기타 부문은 향후 실적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대형 CNC 공작기계는 고가 장비로 장기간 운용되며, 설치 이후에도 정비, 부품 교체, 기술지원, 성능 유지, 고객 현장 대응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동사가 기존 납품 장비 기반을 활용해 A/S와 부품 공급, 기술지원 서비스를 체계화할 경우 신규 장비 수주 변동성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특히 해외 고객이 확대될수록 현지 사후관리 체계와 빠른 대응력이 고객 만족도와 후속 수주 가능성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기계 구조 설계 역량뿐 아니라 제어·소프트웨어·자동화 기술의 결합이 향후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CNC 공작기계 시장은 고강성 구조, 장거리 축 이송 정밀도, 열변위 제어, 진동 억제, 고토크 절삭과 같은 전통적 기계기술에 더해 CAD/CAM 연계, 센서 기반 상태 모니터링, 예지정비, 자동화 시스템, 데이터 기반 공정 최적화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다. 동사는 대형·특수 장비 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나, CNC Controller, Servo Motor, Ball Screw, Bearing 등 일부 핵심부품의 외부·해외 조달 의존도는 지속적인 관리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리스크 요인도 병존한다. 대형 CNC 공작기계는 수주에서 매출 인식까지의 기간이 길고, 고객사의 투자 의사결정, 선적, 설치, 검수, 최종 승인 일정에 따라 사업성고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환율 변동, 핵심부품 납기 지연, 원가 상승, 글로벌 선도업체와의 기술 경쟁, 국내 주요 공작기계 업체와의 경쟁도 부담 요인이다. 특히 해외 프로젝트 확대는 성장 기회인 동시에 품질보증, 현지 서비스, 계약 이행, 외화 결제 리스크를 동반하므로 사업관리 역량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종합하면, 동사는 최근 공급계약을 통해 대형 CNC 공작기계 전문기업으로서 수주 경쟁력을 일부 확인했으나, 향후 전망은 신규 계약뿐 아니라 대형 장비 수주 지속성, 수주잔고의 원활한 매출 전환, A/S 기반 고객 유지, 해외시장 대응력, 핵심부품 조달 안정화, 스마트·복합가공 기술 고도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형·특수 목적 CNC 공작기계 수요 확대와 해외 고객 다변화가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전방산업 투자 사이클과 프로젝트형 사업 특성에 따른 변동성은 계속 관리해야 할 핵심 과제로 판단된다.

한국정밀기계(101680)

증권사 투자 의견

작성기관	투자 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N/A	-	-	-

시장 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네이버증권(2026.06.16)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한국정밀기계	○	X	X

* 2026년 6월 2일 소수계좌 거래집중 사유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음.